

한국BASF, PU 선장 바꾸고 도약

3월 주주총회서 이관용 사장 교체설 ... 아시아시장 본격공략 신호탄

한국BASF(회장 김종광)가 2004년 3월 폴리우레탄 사업부문 수장을 교체하면서 TDI 시장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돼 후임 사장에 과연 누가 영입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BASF는 2003년 9월 TDI(Toluene Diisocyanate) 14만톤 플랜트를 완공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BASF의 TDI 사업은 주로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독자적인 사업 수행보다는 아시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BASF는 TDI 플랜트를 한국에 건설함으로써 중국시장 공략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시장에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시장의 TDI 시장은 1월에 수요가 감소하고 2월 회복기를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3월 한국BASF의 인사 이동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후임 사장에는 생산관리와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문관리 등 품질관리 및 수급조절에 뛰어난 인사가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BASF 관계자는 3월에 단행될 인사 이동설에 관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만한 것도 없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중국 TDI 시장은 매년 10% 안팎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5년 그 수요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많은 국내·외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태이다.

TDI의 중국시장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일본의 Mitsui Chemicals은 6만톤 플랜트를 추가로 건설해 총 24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등 규모의 경제 실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문대로 한국BASF의 사장자리가 3월경 변동이 있게 된다면 새로 취임할 대표이사는 중국 TDI 시장 공략의 첨병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게 될 전망이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26>